

삼성전자 (005930)

2nm, 삼성 파운드리 개선 전환점

삼성 파운드리,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전망

— 2023년 삼성 파운드리는 최대 수주 (160억 달러)를 달성했고, 향후 수년간 역대 최대 수주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 고객 수가 2022년 100개, 2024년 134개, 2026년 169개, 2028년 211개로 추정되어 6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올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추세 진입, 2025년부터 큰 폭 개선

—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가 지속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2023년 최대 규모 수주가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되어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올 상반기 바닥을 확인하고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2024년부터 파운드리 수주는 2나노 (nm)를 포함한 선단 공정의 제품 비중 확대로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2025년부터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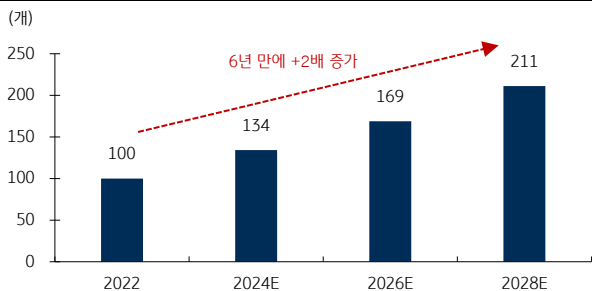
일본 AI 1위 프리퍼드 네트워크 (PFN), 2nm부터 삼성으로 변경

— 최근 삼성전자는 일본 AI 1위 업체인 프리퍼드 네트워크 (Preferred Networks: PFN)로부터 2나노 (nm) AI 가속기 생산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① 딥러닝 AI 세계 1위인 프리퍼드 네트워크 (PFN)가 최선단인 2나노 (nm) AI 반도체 생산부터 TSMC에서 삼성전자로 변경했고, ② 프리퍼드 네트워크 (PFN) 신 사업이 AI 로봇, AI 딥러닝 암 발견, AI 레벨 4 자율주행 등의 상업화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③ PFN 주요 고객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도요타, NTT, 히타치, 화낙 (Fanuc)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미국과 일본에서 추가적인 대형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9, the bell).

2nm, TSMC와 대등한 경쟁 가능: ① 3세대 GAA 공정 P.P.A 효율 우수 ② DSP와 수주 시너지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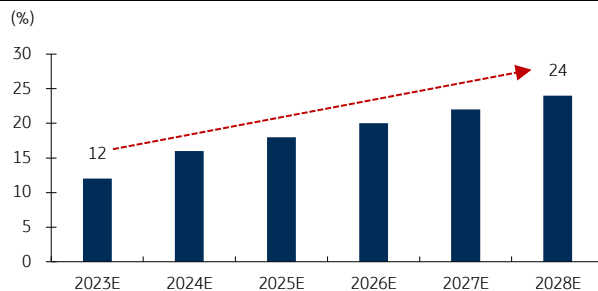
— 최근 2나노 (nm)를 포함한 선단 공정의 수주 증가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반전 계기를 마련해 향후 TSMC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① 2나노부터 3세대 GAA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적용하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의 핵심 지표인 P.P.A 효율 (성능: Performance, 전력: Power, 면적: Area density)이 TSMC 1세대 GAA 대비 우수하고, ② 최근 일본 PFN 2나노 AI 가속기 수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삼성 디자인솔루션파트너 (DSP)인 가온칩스 (399720 KQ)의 역할과 비중이 컸던 사례를 감안하면 향후 파운드리 수주에서 DSP와 삼성 파운드리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일본 PFN의 2나노 (nm) 수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을 포함해 미국에서 신규 수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그림 1. 2028E 삼성 파운드리 고객 수 211개, 6년 만에 +2배



자료: 삼성전자, KB증권

그림 2. 2028E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24%, 5년 만에 +2배



자료: TrendForce, KB증권 추정



더 많은 리포트 보기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